



## ‘헉헉’ 숨 막히는 수습기자들 취재 · 기사작성 · 야근 · 주말근무로 혹사

갓 입사한 수습기자들이 격무에 시달리며 속으로 골병이 들고 있다. 정식으로 사령장을 받기도 전에 일선 부서로 배치돼 ‘대체인력’ 역할을 하면서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11월 입사한 이들이 각 부서로 발령받은 것은 지난 3월1일. 정식 사원이 되는 5월1일보다 두달보다 앞서 실전에 배치된 것. 보통은 6개월의 수습교육을 마친 뒤 사원으로 승급되면서 부서배치를 받는다.

수습기자들은 공교롭게 각 부서의 주요 포스트에 골고루 분산됐다.

가령 정치부로 간 수습기자 3명은 여당, 야당, 총리실에서 일하고 있다. 경제부로 발령난 2명은 한국은행(금융팀)과 기획재정부(정책팀)를 맡고 있다. 기재부 말진을 수습이 하는 것은 근래 보기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최근 기재부 말진은 8년차였다. 사회부의 수습기자 4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지검, 사건팀(2명)으로 배치됐다.

이제 기자로서 첫발을 댄 이들은 배치 2주 만인 지난 15일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각 부서의 ‘핵심 인력’이 됐다.

이들은 여러 기자들이 챙기던 각종 출입처를 넘나들며 기사를 쓰고 있을 뿐 아니라 주말 근무와 야근, 신문·방송 모니터링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 선배들의 격려와 조언을 받지 못한 채 막막함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각 부서에 배치된 수습기자 28명(총 32명 중 사진부 2명·4월1일자 발령 예정 지방취재본부 사진기자직 2명 제외)이 파업 첫날인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쓴 기사는 모두 1천139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이들이 속한 부서의 총기사건수 2천900여건의 39%가 수습기자가 쓴 셈이다.

### 출입처 구분없이 기사써

기사 건수 통계를 보면 이들의 고생이 생생히 보인다.

한 지방취재본부에선 파업 첫날인

15일 수습기자 한명의 이름으로 송고된 기사가 무려 30건이나 됐다. 데스크가 수습기자의 이름을 달아 내보낸 기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 수습기자가 쓴 기사 분량은 1만6천자에 육박했다. 지방취재본부의 수습기자들은 사건사고 기사뿐 아니라 행정 관련 기사, 지역 총선 관련 이슈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부는 이 기간 송고된 기사 229건 중 100건을 수습기자가 썼다. 정당팀 수습기자는 4월 총선 공천 발표 전후로 수없이 이어진 기자회견과 백브

청, 일선 경찰서, 환경부 등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혼자 처리했다.

게다가 사회부 수습기자들은 원래 사건팀원 10명이 돌아가면서 하던 밤샘 야간 근무까지하고 있다. 이들은 2명씩 2개조가 번갈아 회사로 들어와 한명은 오후 11시, 다른 한명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한 뒤 다음날 정상 출근한다.

수습기자가 한 명씩 배치된 미디어과학부와 산업부 역시 업무 강도가 높다.

미디어과학부 수습기자는 당초 팀

특성상 주말이 없는 것은 물론 국외 경기로 인해 거의 온종일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각 축구·농구와 야구·배구를 담당하면서 오후 늦게 끝나는 국내 주요 경기와 밤새 있는 해외 경기, 각종 보도자료와 외신까지 처리하고 있다.

사진부 수습기자들도 오전 7시 전후로 출근해 오후 10시 넘어 퇴근하며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파업기간 쉬지도 못하고 지방출장까지 가야했다.

편집국의 한 수습기자는 “파업 초기에 부장이 파업의 여파를 줄이려는 듯 업무강도를 높여 혼란스러움과 함께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선배들 가까이에서 일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기사 쓰는 것에만 급급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 수습기자 실틈없이 일해

수습기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막중한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수습기자들과 사측과 맺은 근로계약서를 보면 수습기자로써 근로계약 기간은 2011년 11월1일부터 2012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이다.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 후 정규사원으로 채용하지만 ‘직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이 되면 근로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약용될 소지가 크다.

파업이 2주가량 지나면서 사실상의 대체인력인 수습기자들의 노조 가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계약을 보면 수습기자들의 조합 가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도 수습근로자를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연합뉴스 수습 근로계약과 차이가 난다.



리핑을 챙기고 현장에 돌아다녀야 했고, 총리실 수습기자는 설 새 없이 나오는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들어야 했다. 한 정치부 수습기자는 자신의 이름을 잘못 쓰는 실수를 해 이들이 얼마나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하게 했다.

가장 많은 수습기자가 배치된 사회부는 9일간 송고된 기사 148건 중 130건이 수습기자의 이름으로 나갔다. 이들은 주요 포스트에 배치되긴 했지만 출입처 구분없이 전방위적으로 각종 일정과 보도자료를 처리했다.

한 수습기자는 주말엔 환경부와 서울시청 기사를 작성했고, 주중 어느 날엔 경찰서, 행정안전부, 한국고용정보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기자회견 기사 등을 모두 커버하는 ‘신공’을 선보였다.

다른 수습기자도 일주일간 서울중앙지법·지검, 대법원, 서울시, 경찰

장을 빼고도 4명이 나눠 맡던 각종 기관과 업체 등 방송통신팀 출입처 전반을 혼자 챙긴다. 3일에 한번꼴로 아침 조간보고부터 저녁 가판보고까지 한다. 산업부 수습기자는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부동산·유통 등 거의 모든 출입처를 넘나들며 기사를 써야만 했다.

증권부 수습기자들은 하루 15건 안팎의 기사를 쓰는 중노동을 감내하고 있다. 보통 증권부 기자가 쓰는 하루 평균 기사량이 8건임을 감안하면 그 강도를 실감할 수 있다.

경제부는 두 명의 수습기자가 정책팀과 금융팀을 각각 맡아 각종 기사를 커버하고 있다. 26일부터 이틀간 핵안보 정상회의에 한 명이 차출되면서 남은 한 명이 두 팀의 모든 기사를 맡아야 했다.

스포츠레저부 수습기자는 쓰러지지 않고 견디는 게 신기할 정도다. 부서

지금 지방취재본부는 투쟁중

## 강원본부 의암호 자전거길 라이딩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조합원들은 26일 북한강 4대강 자전거길 사업지구를 끼고 의암호를 한 바퀴 도는 30여km 코스의 자전거 라이딩을 펼쳤다.

강원본부 조합원 4명은 이날 오전 라이딩 시작점인 공지천 독방에 모여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파이팅’을 외쳤다.

이번 라이딩에는 이재현 조합원의 배우자이자 투쟁동지인 KBS 김문영 기자도 함께해 파업을 지지 해주었다.

5시간 동안 쌀쌀한 날씨에 맞바람을 안고 가는 라이딩이었다.

자전거가 위태롭게 덜컹덜컹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취재와 업무에 늘 묶여 있던 심신의 피로는 한층 풀리는 느낌이었다.

한적한 공지천 유원지를 출발해 차들이 먼지를 내

뿜는 호반순환로, 고슴도치섬을 가로지르는 신매대교,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북한강 수상 자전거길, 시골의 비포장도로, 가파른 의암리 오르막길을 지나 는 동안 조합원들은 서로 이끌고 격려했다.

조합원들은 4대강 자전거길 구간 중 하나인 26.5 km의 의암호 코스에서 MB의 치적을 드높이듯 붙어 있는 ‘국토해양부’ 마크를 배경으로 ‘투쟁’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어 핸들을 조금 꺾어 서면 방동리에 있는 장절공 신승겸 장관 묘역에 들렀다.

고려 시조 왕건을 위해 목숨을 바쳐 후삼국 통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승겸 장관.

수수하면서도 의연한 모습으로 춘천시를 내려다 보는 장관의 봉분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충의에 대해 가르치는 듯했다.

인근 음식점에서 고소한 두부 부침과 얼큰한 두부전골로 허기를 달래며 조합원들은 평소에 시간이 없어 미처 나누지 못한 사는 이야기와 파업에 대한 의견들을 풀어냈다.

대학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 ‘임의 위한 행진곡’도 가물가물 하더라는 임보연 조합원은 “본부 식구들이 매일 모이는 일, 함께 움직이는 일”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파업 투쟁을 어서 승리로 이끌고 일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그때까지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한층 든든해진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한발 한발 페달을 밟으며 의암호를 돌아오는 동안, 연합뉴스도 지나온 길을 거슬러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강원본부는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 광주전남취재본부 5.18묘지 방문

광주전남취재본부 조합원들은 26일 언론계의 대부인 리영희 선생이 묻힌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광주전남본부 조합원들이 고민 끝에 이곳을 방문한 것은 언론 민주화를 위해 투쟁 중인 연합뉴스의 일원으로서 민주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다시금 일깨울 수 있는 곳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취재차 이곳을 수없이 왔었기에 5·18묘지가 결코 낮은 장소는 아니지만 취재가 아닌 참배를 위해 이곳을 방문한 것은 오랜만이어서 조합원들은 다소 긴장되고 낮은 기분마저 들었다.

조합원들은 수많은 묘지를 지나치며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가 상석을 밟은 일화를 떠올리며 농담을 주고 받기도 했다.

리영희 선생의 묘소는 최근 안장됐기에 5.18묘지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다. 묘소 앞에 나란히 선 광주전남본부 조합원들은 묘소와 묘비를 꼼꼼히 살펴 보며 리영희 선생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방문객들을 위해 간단한 약력 소개도 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리영희 선

생은 연합뉴스의 전신인 합동통신 기자 출신이다.

한 조합원은 “공동집회에서 어느 방송사 조합원이 한 말처럼, 한국 언론의 기준은 연합뉴스이고, 한국 언론의 사상적 대부는 통신사 기자 출신인 리영희 선생이라는 말은 연합뉴스 소속원으로서 가볍게 들을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합원은 “한국 언론을 바로 세우려고 많은 어려움을 딛고 펼쳐 일어난 연합뉴스, 한국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선 우리가 리영희 선생의 묘소 앞에서 떳떳한 기자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닥칠 많은 어려움에도 곳곳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5.18묘지 참배를 마친 조합원들은 연합뉴스를 은퇴한 나경택 선배와 점심을 함께했다.

나 선배는 23년 전 파업 당시의 생생한 경험담을 전하며 후배들을 위로하고 올바른 연합뉴스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긴 조합원들은 파업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 토론했다. 사장 제안에 담긴 의미와 노조의 대응이 주된 의제였다.

사장 제안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조합원들이 한데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대화를 지속해야 하고, 불신임 투표안 등은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